

'이성' 문제의 사상적 비판과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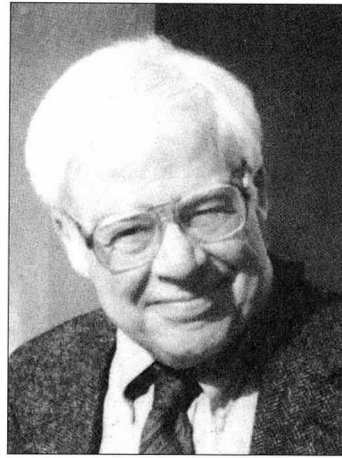
“냉소주의는 사대 자체에 있는 것이지 이 사대를 표시하는 말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시사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자신의 책 《철학의 빈곤》에서 구체적 현실에 걸도는 이론과 형이상학을 꼬집는 자신의 글쓰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을 조금 변형시키면 우리는 철학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제 하나를 빚어낼 수 있다. 철학은 문제 자체에 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서술하는 말 속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가 뭐래도 철학은 문제와의 사상적 대결이다. 변화무쌍한 역사와 사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문제’에 관한 통찰만이 일정한 품격의 철학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적인 철학적 문제가 역사와 현실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는 문제의 다양한 색깔들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철학적 글쓰기는 관념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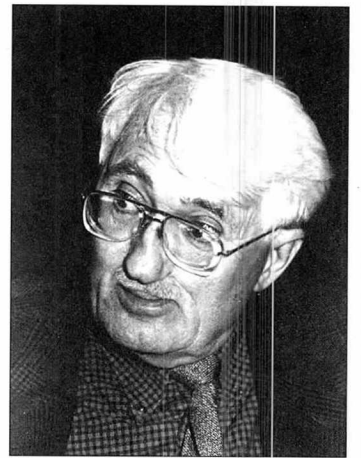
지성의 생산이 없는 철학적 담론

그런데 우리시대의 철학적 글쓰기는 여전히 철학이라는 말의 마법에 묶여 있다.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관한 성찰은 커녕 ‘당대를 사고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계는 철학이라는 말들로 범람하고 있는 지경이다. 위기에 관한 담론과 맞물려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반길 수만은 없는 까닭은 아마 철학적 담론의 확대가 지성의 생산적 확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진단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품처럼 피어오른 담론 속에 철학적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강단에 지성적 싸움과 대결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고,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학문적 활동에 권위의 울타리를 치는 일부 강단철학자들의 생각이 그렇고, 의미없는 기표의 나열에 철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문화적 상품으로 내다파는 얼치기 담론이



리처드 로티



위르겐 하버마스

“ 철학은 문제와의 사상적 대결이다. 보편적인 철학적 문제가 역사와 현실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는 다양한 색깔을 포착하지 못할 때, 철학적 글쓰기는 관념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된다. 철학의 거품현상 속에서도 '이성'의 문제와 연관된 일련의 작업들은 의미있는 일이다. ”

그렇다. 철학이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빈도수는 증대함에도 철학은 빈곤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기존의 철학자들이 단지 학문과 체계를만 추구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주변부의 지성인들이 철학이라는 말만을 앞세운다면, 그들은 모두 빈곤 속에서 기존의 사유와 글쓰기를 가로질러 수 있는 현실의 잠재력을 보기보다는 오직 빈곤의 현상만을 볼 뿐이다.

부자집 철학의 권위에 기댄 채 진정 철학이 말아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강단철학을 과감히 뛰쳐나왔다고 천명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 과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시작되는 생생한 철학을 하였을까? 만화, 영화, 문학 속에서 철학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과연 철학의 현실찾기이고 작품에 대한 기생적 글쓰기가 아닌 작품으로 하는 창조적 글쓰기란 말인가?

본래의 콘텍스트로부터 분리된 낱말과 낱말, 문장과 문장을 조합하면서 철학과 인문

학을 끌어내는 글쓰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변변찮은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리는 ‘썩살철학’과 다를바 없을 것이다.

얼치기 거품을 걷어내는 시도

물론 이러한 거품현상은 서양 이성이 짜낸 거대이야기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 말미암아 야기된 지성적 틈새에서 표출된다. 문화적 엇갈림은 항상 새로운 지층을 드러내 보인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 오리엔탈리즘을 둘러싼 동양과 서양의 대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통해 표출되는 이 틈새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문화적 빈곤을 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일년 동안에 이루어진 철학적 글들에는 얼치기 거품을 걷어내는 이러한 시도들이 간간히 보여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우선 철학이 존재하는 한 보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의 문제와 연관된 일련의 작업들이 눈에 띈다. 현재 철학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는 실제로 이성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성은 역사와 문화를 떠나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실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성은 로티가 말하는 것처럼 ‘힘’에 반대되는 ‘절덕’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를 관류하고 있는 이성비판이 이제는 ‘다른 이성’에 관한 창조적 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리처드 로티의 《실용주의의 결과》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민음사)과 같은 저서들의 출간은 그 밑거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런데 더욱 반가운 일은 로티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해석이 《로티의 사회와 문화》 《로티의 철학과 과학》(철학과현실)의 두 책으로 결정화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보편적 철학에 대한 로티의 아이러니컬한 비웃음 속에서 단지 새로운 글쓰기의 유혹을 느낀다면, 우리가 제 발밑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탈레스를 비웃는 트라키아의 하녀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 시대를 사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로티의 상대주의와 역사주의가 현실속에서 이성을 발견하려는 도전적 요청으로 다가온다.

이런 맥락에서 《도덕 의식과 소통적 행위》(나남), 《담론윤리의 해명》(문예출판사)과 같은 하버마스의 저서들이 번역되고 또 그의 사상에 관한 논쟁들이 《하버마스 이성적 사회의 기획, 그 논리와 윤리》(나남)의 논문집으로 담론화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물론 역사주의의 대 보편주의의 논쟁이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다분히 유행적으로 유통되었던 프랑스로 철학에 관한 비판적 성찰이 시작됨으로써 분석철학과 독일철학으로 양분되었던 철학계의 지형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프랑스 철학과 우리》(당대)라는 기획이 말해주고 있듯이 타자와 바깥의 담론화를 추구하는 프랑스로 철학의 토착화는 이성에 관한 다른 해석을 통해 다른 이성의 모색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누가 뭐래도 철학은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